

주제발표:

현대 교육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

박 선 영
(동국대 교수)

I. 현대문화의 난맥상

오늘날 인간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어떤 면에서는, 과거 어느 때 보다는 무지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문화는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문화인가. 역사는 모든 면에서 진정 진화하고 있는가.

문명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어느 짧은 기간과 특정한 지역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는 인간 개개인에게 여러 가치에의 기회 개방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인간 개개인들은 보다 자유를 확대해 왔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폭을 넓혀 왔다고 할 수 있다. 지식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에 따른 각 방면에 있어서의 생산성의 놀랄 만한 신장은 인류의 숙제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도 있다. 더욱이 근대 이후 발빠른 발달을 거듭해 온 교통과 통신은 인간을 여러 독선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전개에 긍정적인 측면 뒤안길에는 결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어둡다 못해 참담하고 절망스러움을 가눌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점차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르네상스 이래 확대일로의 길을 달려온 욕망 충족의 역사는 마침내 인간을 감각적 향락의 늪에서 헤어내지 못하게 하여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시장경제의 사회 체제는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문화 풍토를 더욱 가속화

하면서 심화시켜 간다. 견고한 도덕성이 병행해서 강화되지 못한 자유의 확대는 금욕과 절제가 이미 미덕이 아니게 되어 버린 것이다. 저마다의 탐욕은 결국 오늘날 자연 파괴로 인류의 미래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회 병리 현상 또한 근원적으로는 이 인간의 절제할 줄 모르는 탐욕에서 야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지구촌의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이기적 탐욕은 이제 세계적 차원의 무한 경쟁 시대와 함께 집단적 이기주의를 더욱 과열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를 위시하여 존속에 대한 폭력이나 살해가 점차 빈발하는가 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훨씬 더 많은 학대와 폭행 그리고 살해가 난무하고 있다. 여기 저기에서 성충동에 의한 각종 폭행과 살상이 쉬지 않고 있다. 유흥이나 감각적 향락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절도나 살인을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 우선의 정책 때문에 환경문제는 고려조차 하지 않아 금수강산의 한반도는 각종의 오염과 파괴로 삶의 조건 자체가 위험수위를 점차 넘어서고 있음을 거의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절제할 줄 모르는 소비생활의 폐품은 대지와 하천 그리고 바다를 더욱 오염시켜 생태계 자체를 파괴해 가고 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각종 불량식품과 가짜 의약품을 범람케 하고 있으며, 각종 토목공사나 건축 공사에서는 인명의 위험성은 안중에도 없는 부실 공사가 판을 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저마다 도덕성의 타락을 개탄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모두 도덕적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정부도 세계화를 국가 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세계 일류의 제품 생산에 있고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비교적 장식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 문명이 지니는 문화적 난맥상이라 하겠다. 이는 곧 좁은 범위에서나마 어느 하나의 절대적 표준에 따라 살아가는, 과거와 같은 삶이 불가능한 개방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진 채 욕구 충족의 자유와 그 실현 가능성의 확대 그리고 탐욕을 부추기는 시장경제의 사회 체제에서 야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 문명은 문화적으로 건강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의의 자체를 상실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아니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대로 나가다가는 그것은 인류의 종말을 끌어들이는 것 이외의 것이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이 도덕성의 회복은 배타적인 그 어떤 하나의 덕목이나 신조의 제시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세계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개방화에 따른 사회현

상은 인류 보편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가치 기준을 요청하고 있으면서도, 多價値를 그 특징으로 하는 개방 사회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그 나름대로의 개성에 따른 독자성을 발휘함으로써 세계화가 획일화가 아닌 문화적 풍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또한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I. 현대 교육의 고민

교육의 본질은 원래 사람이 삶을 통해 삶 속에서 삶을 익히면서 보다 바람직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적인 존재로 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삶이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시에 교육의 작용은 있어 왔다 하겠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교육은 본래 미성숙의 다음 세대가 부모를 위시한 기성세대의 어른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모방하면서, 그리고 어른들의 어린이에 대한 거둬들이는 심리적 상벌의 반응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가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분화되면서 한 쪽에서는 기존의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의도적인 교육이 강화되었다. 또 한 쪽에서는 피지배 계급의 노역에 의해 삶 자체를 위한 생산 활동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된 지배계층이 의미 있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자연과 인생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학문이 출현하게 되고, 이러한 학문을 전수하고 계승하면서 의도적인 교육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지역마다 그 지역을 거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특정한 종교 또는 준종교의 세계관이 있어 교육 또한 이 특정한 종교나 준종교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상공업의 발전에 따른 자유시민의 권력신장, 과학적 지식과 이에 수반한 생산기술의 발달,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전개와 병행한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사물을 대하는 안목을 확장시켜 점차 인간들을 과거의 어느 하나의 특정한 세계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육 또한 기성세대가 기존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게 된다. 루소에 의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아동중심과 생활중심의 이른바 자연주의 교육이론과 듀이의 경험중심의 교육이론은 바로 이런 교육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위와 같은 교육사의 흐름을 토플러가 말하는 권력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 그 폭력이 겉으로 어떻게 포장되었든지 간에 - 폭력에 의해 지지되고 유지되어지는 사회체제 속에서 의도적인 교육은 소수 특권신분의 아들들에게 지배층의 신분으로 활약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한가한 시간을 격조 있게 보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일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텃셀도 일찍이 설파했듯이 세속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신분의 유지를 위한 하나의 장식품과 같은 성격의 교육이었다 하겠다. 서양의 경우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보듯이 하나의 특정종교가 사회의 전 문화를 배타적으로 독점했던 중세의 교육 또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금욕적인 성격을 지닌 교육으로서 현세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위한 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은 고대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중세를 넘어 근세로 접어들면서 신흥 상공업도시가 점차 번성하여 이 상공업자들의 자제들을 위한 교육이 제기되면서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교육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나아가 산업혁명 이후 크나큰 공장에서의 분업에 따른 동일 제품의 대량생산 체제와 발맞추어 거대 규모의 학교에서 많은 학생을 상대로 같은 내용과 같은 방법의 획일적인 교육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근대의 국가주의와 그 이후의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교육의 기회균등 나아가 점차 국민 복지이념과 결부되면서 이 교육의 대형화와 획일화는 더욱 심화되어 왔다 하겠다. 그리고 교육의 이러한 현상은 사회권력의 축이 자본가 내지 부의 소유자에게 이동해 간 과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현대에서 크게 제기된 교육에서의 개별화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교육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듀이 - 서로 철학적 배경이 달라 교육관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敎育思想史的으로는 듀이는 루소의 자연주의와 같은 계열에 속한다 - 의 경험주의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의 발달이 산술급수적인 현상을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 전이고 이제는 기하급수적인 현상까지 넘어서서 점차 폭발적인 현상이 연속적으로 가속화되자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구조를 알게 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속에서도 일관된 신념을 곳곳하게 지니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의 세계에 눈뜨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도 하는가 하면, 실존적 자각을 통해 도덕적 주체자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한다. 교육관 자체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전인적 교육관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어느 하나에 국가적 내지 세계적으로 제일인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도 점차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인교육

을 주장하는 경우 그것은 대부분 고루고루 여러 영역의 교육을 병행하자는 것인 바, 과연 서로 다른 영역들을 골고루 교육하기만 하면 저절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론은 아직까지는 없는 형편이다. 敎職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聖職觀은 아직도 온존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專門職觀으로 일반화되어지는 느낌이며, 한편에서는 勞動職觀 또한 만만치 않게 등장하여 있다.

여기에서도 인류의 역사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요청 받고 있는 것이다. 지식과 기술은 물론이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조직과 물품 등 모든 것이 일시성을 면치 못하며, 끊임없이 회한하고 새로운 것이 계속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토플러는 이러한 현상을 곧 권력의 중심축이 남보다 먼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도 광범하게 수집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잘 가공해 내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해 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도 있다. 교육은 누가 무어라 해도 미래에의 준비라는 성격을 배제할 수 없는 바, 미래사회가 이토록 찰라적인 성격의 사회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미래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처하는 교육으로 제창되었다 할, 이른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에서 도덕성의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도덕교육이 과연 도덕적 사고능력의 신장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제창된 평생교육만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시기에 있어서나 場에 있어서나 전체 통합적인 성격의 교육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모두 평생교육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전체가 건전한 학습사회인 동시에 건전한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체제를 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 낼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 그러나 문명사적으로는 분명 대전환을 맞고 있는 현대, 서로 다른 교육관과 교육이론들만 무성할 뿐이며 이들을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오리무중의 상태에 있는 현대, 혹 그러한 통합의 이론이 나온다고 해도 이를 밀받침하여 실현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육학도나 교육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현대의 교육계가 교육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진실로 현대의 교육은 교육 그 자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라 할 것이다.

Ⅲ. 인간교육과 불교의 역할

교육의 문제는 바로 세계관의 문제라 하겠다. 여기에서 세계라 함은 인간의 인식대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계관이란-그것이 사실로서의 존재이든 아니면 관념적 차원의 그 어떤 것이든 이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에 있어서의-모든 사물에 대한 유기적이고도 일관된 관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의 세계는 모두 단순히 자연과학적 차원의 존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미 지워져 존재하는 의미의 세계이기도 한 것이다. 진정한 인간교육은 단지 사물에 대한 존재로서의 객관적 사실을 알게 하거나 그 사실을 아는 방법을 알게 하는 데에 그치는 교육을 넘어서는 성질의 교육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인간교육은 사실에 대한 지식이나 그 지식의 탐구방법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그 지식이나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의미지우며, 이 이해와 의미 속에 내재하는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교육의 문제는 바로 세계관의 문제”라고 한 것은 곧 이러한 뜻에서의 발언이며, 교육학에서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은 곧 가치활동이다”라고 하는 말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의 견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의 인간교육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의 세계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하겠다. 釋尊의 발언에 의하면 한 인간으로서의 신다르타가 분다가 된 것은 “모든 것은 직, 간접의 무수한 상호관계에 의해 생겨나고 존속하며 또한 사멸한다”고 하는 이른바 “緣起法”의 깨달음에 의한 것이었으며, 석존 자신이 중생들에게 분석하여 해설하고 들어내어 보여주는 것 또한 이 연기법이었던 것이다. 불교의 존재론에서 “모든 사물은 實體가 아니다”(諸法無我)라든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諸行無常)라든가 하는 것은 다 이 연기법에 기초한 사실판단인 것이다. 모든 것이 상호관계에 의한다면 상호관계의 변화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그 어떤 사물도 여러 관계에 의한 임시적인 존재일 뿐이고 불변의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하겠다. 또한 이와 같은 연기법에서 보면 그 어떤 것도 일방적으로 집착하여 고집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극단주의 이외의 것이 아닌 것이다. 석존 자신이 당시의 종교계나 철학계에 유행하던 쾌락주의와 고행주의, 그리고 實在主義와 虛無主義를 모두 극단주의라 하여 배격하고 中道 만이 가장 “바른 길” 즉 正道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석존은 중도의 정도는 바로 연기법의 삶이라고 하는가 하면, 석존 자신은 이 연기법의 정도를 의지하고 존중하면서 이 연기의 정법에 따라 살 것이며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러했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이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 중도의 연기법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實體化하여 나와 너를 分別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히는 삶에서 벗어나, 나와 너가 하나인 경지에서 지혜와 자비를 자주적으로 실천하면서 진정 평화롭고 행복한 바른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석존 이후의 불교에 있어서 교리의 발달이나 修行法의 다양화과정은 이 연기법의 修行을 통해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심화시키고 풍부화해 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불교의 세계관은 한 마디로 말해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의미의 세계에 있어서의 연기의 세계관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의 세계관 즉 緣起의 세계관은 교육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 보았듯이 연기의 세계관은 모든 극단을 넘어서는 중도의 세계관이며, 나와 너가 둘이 아닌 경지에서 지혜와 자비를 자주적으로 실천하는 自他不二의 세계관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에서의 진정한 지식은 대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체험적 지식으로서의 지혜인 것이다. 여기에서 체험적 지식으로서의 지혜는-일반적으로는 흔히 명상으로 불려지고 있는-修行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다. 이 수행은 일체의 선입관이나 전제로부터 벗어나 통일된 집중의 정신상태에서 자기자신의 내면을 淨化시켜, 자기자신을 포함하여 사물을 그 자체에 있어서 照見하는 다시 말해 直觀하는 것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수준의 진정한 지혜는 깨달음을 그 계기로 하는 바, 여기에서의 깨달음을 통한 앎은 감각적 지각을 매개로 하거나 언어의 중간세계를 통한 논리적 추리에 의한 대상적 지식의 획득이 아니라 그 어떤 매개나 중간세계로부터도 벗어나서 나를 포함하여 사물을 그 자체에 있어서 통찰하는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앎이라 하겠다. 이러한 불교의 수행을 - 다소 오해나 왜곡의 위험성이 있음을 무릅쓰면서 -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은 탐구행위의 과정 자체가 인격의 변화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오늘날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지혜가 이에 병행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성찰이 부족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모두 객관성의 확보라는 이름 아래 대상을 인식주관과 분리시켜 탐구하고, 이렇게 분리의 조작에 의해 얻어진 지식이나 이러한 지식획득의 방법만을 가르치게 된 것이 현대 학문이나 학교교육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하여 앎 따로 삶 따로의 현상으로 되어버렸다 하겠다. 이는 곧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나 이 사실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에 없이 많은 것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이나 기술이 근거해야 할 저편이랄까 의미의 세계에 대해서는 맹목이 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 있어서 수행적 성격을 지닌 탐구나 지식이 지닌 실천적 내지 지혜로서의 성격이야말로 좀 전에 제기한 현대의 교육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새로운 시야 또는 지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人間事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그러하듯이, 학문이나 교육에 있어서나 사고방식과 관찰방식은 그 삶 자체를 규정한다고 할까 아니면 달라지게 한다고 할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불교에 있어서의 관찰에 대해서는 위에서 검토했거니와, 불교에 있어서의 사고방식은 한 마디로 말해서 중도에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논리학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고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때, 불교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특징을 이루는 중도는 논리학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명될 수 있는 것일까. 서양에 있어서의 일반논리학의 대전제가 되는 논리학적 公理 또는 최고원칙은, 잘 알려져 있듯이, 同一律 · 矛盾律 · 排中律 등이다. 여기에서 동일률은 “a는 a이다”라는 원칙이고, 모순률은 “a는 非a이지 않다”는 원칙이며, 배중률은 “x는 a이거나 아니면 非a이다”라는 원칙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배중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흑백논리의 사고방식이며 불교의 세계관에서 볼 때에는 극단적 사고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서양에서 최초로 논리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확립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이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서양 형식논리학의 최초 정립자이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전반적으로 위의 세 가지 공리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논리학은 서양의 논리학이나 사고방식에 두고두고 계속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논리학 또는 사고방식은 그의 존재론과 긴밀하게 관련되고 있거니와, 그는 모든 사물은 그 자체 내에 實體를 지니고 있어 명제에 있어 실체는 주어가 되고 그 실체의 形相(form)은 술어가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서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와는 전연 다르다. 이 연기의 세계관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관계에 의한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독립된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a는 非a이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무수한 상호관계에서 임시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는 현상 자체까지도 부정하는 결과가 되며, 나아가서는 “非a”(無)에 집착하여 “非a”(無)를 實在化시킬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a는 非a이다”라는 판단을 다시 부정하여 “a는 非a이지 않다”라고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x는 a이며 동시에 非a이기도 하다”고 한다. 본인은 불교의 이러한 논법을 잠정적으로 “중도의 논리학”이라고 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서의,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한 서양

의 전통적인 논리학의 세 가지 공리에 대비하여 불교의 중도논리학의 원칙을 각각 부정률·부정의 긍정률·容中律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불교의 중도논리학은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중도의 사고방식에서는 모든 관계에 있어 “서로 다르면서 같은 하나이고, 같은 하나이면서 서로 다르다”고 보고 이해하며 느끼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는 사고방식이다. 여기에서 “모든 관계”란, 예를 들면 나와 너·개인과 사회·인간과 자연·물질과 비물질·여기와 저기·과거와 현재 및 미래·찰라와 영원·시간과 공간·이상과 현실·현상과 본체·실재와 허무·질료와 형상·有와 無·개체와 전체·감과 음·生과 死 등 기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체의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다양성을 다 긍정하면서도 그 다양성 하나하나가 다 같은 동일성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도의 연기적 세계관 속에서는 일체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면서도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의 풍부화가 살려지게 된다. 따라서 물질이나 기술이 결코 배제되지 않는다. 釋尊은 在家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노력하여 재산을 증식시킬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을 지니도록 가르치고도 있다. 욕구도 그 자체에 있어서는 선과 악의 이전인 無記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기본입장이기도 하다. 문제는 사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인간이나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을 위시해서 모든 人間事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 인간의 됄됨이에 귀착되는 것이다. 佛經의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라는 가르침은 불교의 위와 같은 입장을 가장 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양한 개별성을 긍정하면서도 너와 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인 경지에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이나 아니면 자기중심적 아집에 사로잡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삶이나가 인간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설 때, 이미 논의한 바 있는 현대가 맞고 있는 교육의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 - 이곳에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자세한 검토를 할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것이라 하겠거니와 - 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시사점이나 시야를 感得할 수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의 이론을 어떻게 발굴하고 재창조하여 교육의 실체에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정진이야말로 불교교육학도들에게 일차적으로 지워진 임무라 할 것이다. 매우 어렵고 힘든 과업이기는 하지만 근래의 구미 일각에서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들 자신

의 세계관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그들 자신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불교를 위시한 동양사상의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주목할 만한 연구성어나 착실한 성과의 누적도 나타나고 있는 등 불교교육학도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도 있음을 전하고자 한다.